

석유화학단지 안전점검 본격 착수

산자부, 여수 시작으로 울산·대산 차례 ... 외국 자문기관도 참여

산업자원부가 10월3일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단지 소재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및 설비 모두에 대해 본격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점검반은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소장 윤인섭 교수) 주관으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안전점검 관련 전문기관 9곳이 관리시스템과 설비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고 외국의 우수한 전문기관(일본도쿄공과대 등 5개 기관)이 자문에 참여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호남석유화학이 소재한 여수석유화학단지의 16개 입주기업 80개 플랜트에 대해 200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후 울산(16사 70개 플랜트)과 대산(2사 29개 플랜트)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성재갑 회장)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안전점검에 8억2000만원을 책정해 금주 중 서울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하고, 울산 및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착수 시 소요경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안전점검반 구성내용

구 분		참여기관
관리시스템 점검(5개 기관)		서울산업대, 광운대, 소방학교, 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점검(4개 기관)		중앙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방화공학센터
자 문	국내(3개 기관)	석유화학공업협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여수시
	외국(5개 기관)	일본토쿄공과대학, 일본오카야마대학, 타이완 국립 안전 환경 센터, 프랑스 Lille대학, OECD 화학사고소위원회

한편, 산자부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호남석유화학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플랜트에 대한 1차 안전점검에서 제1공장은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해 10월22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제2공장과 화재가 발생한 제3공장에 대해서는 완전 보수한 후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 재가동 여부를 판단기로 결정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11>